

온다(Onda)문학의 사상적 유래

김 중

서울대, 중남미문학

I. 머리말

아수엘타의 혁명소설 이후 40년대의 레부엘타스(José Revueltas:1914-1976), 아녜스(Agustín Yanez: 1904-1980), 50년대의 룰포(Juan Rulfo: 1918-), 아레올라(Juan José Arreola: 1918-), 까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 1928-)의 소설들을 전통소설의 맥락에서 “단절” 혹은 “독특한 경향”이라 평가할 때 60년대의 살다냐(Parménides García Saldana: 1940-), 사인스(Gustavo Sainz: 1940-), 아구스틴(José Agustín: 1944-)의 소설경향 또한 예외는 아니다.

60년대에 들어와 산업문화가 가져온 보편적 모순에 대한 회의 속에서 반문화 운동이¹⁾사회 각부분에 확산, 심화되면서 이제 인식론적, 윤리적, 미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가 모색되기 시작한다. 대항문화 나아가 문화혁명이라 불리는 이 시기의 청년운동은 20세기 후반의 문화흐름에서 가장 거대한 지적 도전이자 정치적 모험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불란서 5월 혁명은 제3세계의 모순을 포함한 모든 불평등구조 속에 놓여 있는 국가, 인종, 계급, 인간의 문제가 “나”의 이름으로 느껴지고 그 억압의 조건들을 타파하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²⁾ 5월 혁

-
- 1) 60년대 들어와 구체화되고 두드러진 여러입장-인권운동, 신좌파운동, 반전운동, 히피족, 지피족, 히피테카족, 페미니즘 운동, 성개방주의 등과 일정한 차별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운동(언어, 음악, 의복, 성도덕, 마약, 정치참여 등)을 통하여 기존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뜨리려했던 문화운동
 - 2) 이러한 운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서구산업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존질서 및 문화적 체계와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적 가치사이의 갈등을 인식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60년대 학생운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

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념적이면서도 공상적이었고, 논리적이면서도 감상적이었던 대항문화의 상상력은 세계사의 흐름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였다.

멕시코에서도 유럽(독일, 프랑스, 체코 등)이나 일본,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성사회가 구축해 놓은 가치관을 넘어 기존문명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자하는 반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새로운 세대들은 사회와 정치의 모순, 경제적 불안정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불만을 조직화하였으며 정부는 여기에 맞서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를 발생시키며 강력하게 대응하였다.³⁾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더욱 기존사회의 질서와 거리감을 느끼고 기성사회의 도덕성의 결핍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작가들 특히 젊은층 작가들에게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정치사회와 경제적 평등구조를 건설하고 기성문화의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려는 새로운 전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특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운동을 지지하며 그들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지식인들 가운데 이 사태에 참여하여 시대의 아픔을 겪었던 작가들은 당대의 사회적 상황을 종합하여, 젊은 세대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의식을 소설작품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낸다.

보면 첫단계는 평화주의적 개혁단계로 위협과 힘을 사용하는 대신 협동을 추구하고 정치적 참여와 인권운동을 포함한 사회개혁운동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동료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단계로 파악하고, 두번째 단계로는 60년까지로써 대학생들이 주요한 사회갈등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대학이 사회에 있어서의 권력의 중심부 및 정치적 주도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시기라 보았으며, 마지막 단계 즉 68년이후엔 특히 미국의 학생운동은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후퇴하여 보편적 가치와 이상의 실현-경쟁보다는 협동, 성공보다는 표현,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 하는 것보다는 되는 것, 복종보다는 자율-을 위하여 학생운동이 지속되어졌다고 보고 있다.(오세철, 『현대사회와 학생운동』, 학민글밭, 1986, pp. 279-281)

- 3) Gustavo Díaz Ordaz(1964-1970)대통령 정권시기인 1968년 10월 2일 남미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국립종합기술학교(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점령과 정치, 경제, 사회적 불만을 시위하던 시위대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중집회가 트레스 꼴뚜라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동안 군헬기가 나타나 민간인 복장의 군인과 경찰들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발포하여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시민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다. 집회지도자들은 체포되었고 모임에 참석한 직장인은 해직되었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복직을 불허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태는 68년도이후 멕시코 문화, 정치, 사회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문학에 새로운 변신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엘리트 문학과 차별되는, 다시 말해 “대중적 경향으로의 변모”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였다. 단적인 예로 60년대에 성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흐름인 온다Onda문학⁴⁾은 독자층을 확대시켰다는 점과 기존 문단제도 내에 편입된 문인들에 의존되어 왔던 문학이 이들의 출현으로 인해 창작의 대중화 내지는 평등화의 발판을 만든 계기만 보더라도 이전까지의 문단의 지배적인 사상적 성향과 일정하게 차별되는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60년대는 문화적 갈등이라는 현재의 문화적 지형내에서 유용한 해석의 단초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온다문학에 대한 검토는 매우 유의미해 보인다.

A. 기원을 찾아서

산업문명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대한 문화운동 -특히 미국의 문화운동-의 영향은 60년대 멕시코에 이르러 정치, 사회,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젊은 세대들은 세계 2차대전

- 4) 60년대에 이르러 “La Onda”의 의미는 기성문화를 타도하고자하는 반문화적구조를 갖는 새로운 작가 세대에 의해 어원적으로 전혀 다른 뜻을 지니게 된다. 또한, 온다문학은 1964년에 José Agustín이 『무덤La tumba』를 출판함으로써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학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며 보다 일반화된 문화적 관심을 분석하여 익숙한 전통을 재구성하고 전복함으로써 혁신과 친밀감 모두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온다문학의 성향은 언어, 기법, 테마 등에서 기존의 작가들과 현저하게 구분된다. 특히, 언어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멕시코 소설에는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은어를 소설세계에 적용하여 기존문학의 질서에 도전하였다. 여기서 언어는 도구이자 현실을 분석하여 변화시키는 혹은 재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는 세대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자유, 반항, 갈망, 경험을 통해서 단순한 매체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또 다른 ‘언어’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 즉 “온다세계”를 창조한다.

위에서 언급한 어원적으로 새로운 “온다”의 뜻을 예를 들면, “Estar en Onda”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써 히피운동 혹은 신세대의 사고방식에 동참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 마약복용자들 사이에서는 마약복용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에서도 일상생활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Qué Onda?는 인사말로써 “어떻게 지내느냐?”, ¡ Qué Onda!는 저항 또는 감탄의 의미로써 “무슨일이야!” 혹은 “대단한데!”, Fuera de Onda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외에도 Una buena Onda, Sacarse de Onda, Ponerse en Onda, Entrar en la Onda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후에 “status” 즉, 기존질서에 대한 불만과 반항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도로로나와 그룹을 지어 휩쓸리며 기성사회 관습에 대항하였다. 그들에게 폭력은 탈출구이자 일종의 삶의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영화산업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제임스딘의 이미지를 통해 교묘하게 “이유없는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상품화하였고, 이것의 성공적인 소비가 보여주듯이 이런 반항적인 문화는 이제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된다. 그러나 제목이 보여주듯이 전쟁이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추구하던 미국의 기성세대들은 ‘교묘하게’ 그들이 고수한 기존의 질서와 가치의 ‘갈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미국 신세대들이 이러한 ‘갈등’에 처해있을 때 유럽 특히 불란서의 젊은이들도 세계 제2차대전의 상흔으로 좌절과 절망의 늪에 잠겨 있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그들은 거대한 환영에 대한 좌절과 슬픔으로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하이데거와 같은 사상가들은 고뇌의 철학을 정립하였으며, 유럽전반에 걸쳐 원초적인 의문 즉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런 반성은 세상은 기존 질서체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었다는 자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반성에 따라 기존가치체계를 문제시하는, 비록 분산된 형태지만 억제할 수 없는 표현 방식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들은 후에 나타나는 히피족⁵⁾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미국의 “이유없는 반항자들”과 유럽의 “실존주의자들”중에서 60년대 히피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히피족들을 잇는 다른 양상의 문화운동을 발생시킨다.

히피세대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단체는 “비트 세대(Beat Generation)”라고 볼 수 있다. 비평가들은 비트 세대의 지도자로서 캐루악(Jack Kerouac)⁶⁾과 킹스베그(Allen Ginsberg)를 언급하고 있다.” 1957년 캐루악은 『거리에서On

5) 히피(hippie)는 원래 경멸적인 의미에서 세련된 체하는 위선자를 뜻했다고 했다. 그러나, 60년대에는 장발과 특유의 옷차림을 한 히피들이 소위 “counterculture”라고 하는 대항문화의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이트 애쉬베리 지역과 맨하탄의 그리니치 빌리지 및 소호지역은 히피들이 모이는 중요 장소가 되었다. 히피물결과 함께 등장했던 그룹들에는 “제퍼슨 에어플레인”, “마마스 앤 더 파파스”, “그레이트 풀 밴드”, “소니엔 셰어” 등과 히피의 외모와 생활방식으로 잘 알려진 록 뮤지컬 “Hair”가 있다. (파폴리움악용어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3, p. 282)

6) 1922년 미국 메사추세주에서 태어나 “비트세대”의 핵심적인 작가로 활동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꿈의 서적”(1961)과 “멕시코 수도의 블루”(1959) 등이 있다.

the road』을, Ginsberg는 1956년에 광기와 섹스 그리고 마약을 다룬 『절규 Howl』⁸⁾을 출판하여 이 세대의 출현을 예고한다.

비트란 원래 재즈에서 유래되어 드럼을 치는 의성어으로써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더욱 넓은 의미 즉 ‘비트 세대’가 담고 있는 저항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⁹⁾

캐루악이 60년대에 소련이 우주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인 Sputnik을 본떠 자신의 세대를 “Beatniks”라 칭하였듯이¹⁰⁾ 이들은 ‘비트’를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비트’란,

자아의 빠속까지 구멍이 나고 마음속으로부터 사물을 보며 키에르케고오르적인 의미에서 사르트르보다 더 열렬한 실존주의자를 의미한다.¹¹⁾

캐루악은 “비트세대”세대들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 세대가 심오한 신앙심에 의해 특징지워졌다고 단언하는 반면, Parménides에 의하면 비트운동은 저항적 움직임에 하이데거, 사르트르, 캐루악 등의 사상가들의 지식을 덧붙인 것이라 하였다.

하여튼, 비트세대 부패된 사회구조에 저항을 했으며, 그들의 은어는 흑인지역에서 사용하는 “to be hip” 즉, “위에 존재”하고 그들 분위기에 휘말리며 모든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트세대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 정치, 이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트세대가 결성된 지 2년째인 두번째 집회에서 어떠한 경향의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 즉 중립적인 입장을 계기로 그들 사이에 부패되고 타락된 여러 요소들이 침투하여 ‘비트세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Parménides에 의하면 비트운동의 쇠퇴와 더불어 미국내에서 젊은 세대들의

7) Enrique Marroquín, *La contracultura como propuesta*, Joaquín Mortiz, México, 1975, pgs.32-36

8) 이 시집은 Ginsberg가 광기시인 솔로몬Carl Solomon에게 바치는 글로 당대의 비인간화와 총체적 위기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밝히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또 다른 독특한 점은 Ginsberg는 광기를 사회적 체제의 억압과 기계주의에 짓눌린 최후의 환상의 순간이라 보고 있다.

9) Enrique Marroquín, op. cit., p. 19.

10) *Ibíd.*, p. 42.

11) Krim seymur, citado en Enrique Marroquín, op. cit., p. 19

저항은 잠정적으로 일단락되었고 그들 세대의 지도자들, 특히 케루악은 일종의 인종주의자로 변신하여 다른 새로운 사회 개혁운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전한다.¹²⁾

B. 히피족의 출연

비트 세대와 히피족 사이의 교량역할을 한 것은 록음악이었다. 록음악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불만을 표명할 때 이용했던 대표적인 수단이었으며 '온다문학'과 60년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재즈와 마찬가지로 흑인음악에서 로큰롤에 이어 록음악이 생겨났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출현과 더불어 백인들은 이런 경향의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밥 딜런, 피터, 폴 앤드 메리 그리고 존 바이스와 같은 음악가들이 민족음악을 통해 대학가에서 반전통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음악 또한 미국에서 성행하였다. 그러자 영국의 그룹들 역시 록음악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비틀즈는 록음악을 통해서 젊은층들의 정신적인 선도자가 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영국 전통의 모든 로큰롤을 해체하게 만든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 속에서 롤링 스톤은 기성세대들의 도덕, 윤리관에 맞서 개방적이며 냉소적인 자세로 대항하므로써 비틀즈와는 다른 이미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롤링 스톤은 비틀즈의 노랫말에 담긴 “너와 함께 밤이 새도록 춤을 추고 싶다”와는 대조적으로 “밤이 새도록 당신과 사랑을 하고 싶소”라 표현하며 기존사회에 저항하였다.¹³⁾ 이처럼 록음악은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나타냈고 새로운 문화와 사고체계를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면 히피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뉴욕의 그리니치Greenwich지역과 마찬가지로 산프란시스코의 하이트Haight와 에쉬베리Ashbury지역에서 이색적인 차림을 하고 반전통적이며 기존 미국문화 가치와는 정반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젊은세대가 살았다. 전국에서 수천명의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가정과 계급을 버리고 모여들었다. 그들에게 유일한 법은

12) Parménides García Saldana, *En la ruta de la Onda*, Editorial Diógenes, México, 1986, pp. 19-20.

13) Parménides García Saldana, op. cit., pp. 118-119

각 개인이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¹⁴⁾

히피족은 정립된 부르조아세계를 거부하는 젊은 세대로 가정과 기존사회 밖에서 색다른 가치를 근거로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폭력을 거부하고 신비주의로 가득찬 자신들의 도덕과 윤리관을 창안했으며 어느 시점에서, 비록 초기 기독교와 유사하긴 하지만 일종의 제설의 혼합주의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들의 대부분이 영원히 그런 방식의 즐거운 삶을 살길 원하였다. 이 시대에는 ‘underground’의 요소들, 즉 이색적인 잡화 상가-hachís를 피우기 위한 기구, 수공예품 등, 어두운 조명이 설치된 디스코텍, 채식식당, 그리고 동양적인 요소 등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두드러졌다.

채식식당이나 의류상점, 디스코텍들은 팝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팝은 대중을 의미한다. 예술은 특수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언어를 사용하여 여러 주변조건에 의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대중에 의해서 보존되며 그것이 곧 전통이 되는 것이다. 대중popular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이나 어미가 탈락된 팝pop의 운동은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다. 결국 대중음악을 포함한 예술, 문학은 우리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팝운동은 우리 시대의 다른 특징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팝은 대중의 음악이며 대중의 예술이다. 지금에 이르러 우리는 고급 예술에 소비예술, 소비음악과 같은 대중적인 요소를 이입하면서 팝아트라 칭하였다. 우리는 같은 기호의 문화를 생산해 내는 대중사회에 살고 있다. 예전에 음악, 미술, 연극은 특정한 소수들이 향유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메스 미디어와 출판 수단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히피운동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40년대 이래 허무감에 빠져 지내 오던 젊은 세대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히피족은 그들의 불만을 비트 세대의 요소와 새로운 다른 요소들을 혼합하여 그들 특유의 행동방식을 통해 표현했다. 팝문화는 소비사회의 결과였으며 히피족들의 평화주의적 사고는 주전론의 미국전통주의와 맞부딪치게 되었다. 전통주의와 히피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¹⁵⁾

14) Margaret Randall, *Los hippies*, Siglo veintiuno, México, 1968, p. 82.

15) Stuart Hall, *Los hippies*, Cuaderno Anagramor, Madrid, 1970, p.106

전통주의	히피족
권력	사랑
힘	꽃
아픔	즐거움
백인	인디언
남성	여성
어른	아이
사회	개인
단어	상상력
객관성	주관성

위 도표에서 비교, 분석하듯이 두 방식의 삶은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히피족은 소비사회 혹은 대중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소비사회의 문화가치를 거부하고 탈피하고자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히피족은 “룻소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린 미개인을 재현하고 있다. 문명에 의해 19번째 행복의 환상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연 즉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 갈망했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 가려 했다.”¹⁶⁾ 자연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의미와 사랑, 꽃, 상상력 등의 가치에서 볼 때 히피족들은 독특한 저항자이었음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제도에 위협적인 행동은 가하지 않았다. 사회제도에 공격적인 태도로 위협을 준 단체는 히피족을 이어 형성된 지피족이다. 히피족들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장발은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였으며 이것은 명백히 저항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1968년도에 막이 올랐던 오페라 “Hair”¹⁷⁾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그녀는 나에게 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항상 털이 많다

16) Enrique Marroquín, op, cit., p. 52.

17) 미국의 “민족적 사랑의 록 뮤지컬”로서 발표되었던 작품이며 록 이디엄(idiom)으로 된 최초의 브로드웨이 쇼였다. 그 성격을 초고(草稿)에 맞춰서 만들기 위해 히피의 문화에 따른 새로운 삶의 형태를 묘사하는 갖가지의 수많은 장면들로서 그 구성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1967년 10월 29일 개막되어 1972년 7월 1일에 폐막될 때까지 1729회의 공연 기록을 세웠으며, 세계시장에서 발매된 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코어였으며 브로드웨이 공연을 위해 쓰여진 스코어 중에서 최다 연주 기록을 세운 것이었다.(파퐁리음악 용어 대사전, op, cit., pp. 260-261)

고 답했다. 긴머리 여인이여! 놀랄일이구나. 나는 위에서 아래까지 나도 모르는 털이 나 있으니 왜냐고 묻지 말아라. 내 머리카락은 예수의 모양과 같다. 알렐루야, 난 그를 존경한다. 알렐루야, 마리아는 그의 아들을 사랑했다. 왜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Hair, Hair 신이 허용하는 데까지 길러서 보여 주리라.¹⁸⁾

긴머리는 달리말하면 기존윤리관에 대한 도전이다.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폐쇄적이고 원시적인 사회에서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어떤 요소들이 그 사회에 대항하는 요소로 인식이 되거나 혁신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특징으로 히피족 세계에서는 마약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히피족들은 은밀한 실험실에서 조제된 합성마약을 복용하고 “여행”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¹⁹⁾

“온다Onda히피”족들은 쾌락과 새로운 감각,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마약을 가까이 했으며 또한 자신을 알고 새로운 것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욕망 즉 “내적 채광”, “내적 혁명” 혹은 “문화갱신”을 위해 복용하였다. 그들은 마약을 전위주의 즉 전위주위 문화와 사회적 변화에 연관시켜 전통이나 틀에 박힌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주어가 제외된 객관적 사실의 변동과 의미의 초월상태에서 마약은 모든 의미들 즉 빛, 색, 음악, 섹스 등의 모든 의미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단지 히피만이 이런 사상을 가진 것만은 아니다. 일부 과학자들 또한 이롭게 복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의 유명한 사회학 교수인 파르손(Jame parsons)은 얼마전 ‘아메리카 역사 협회(Asociación Histórica Americana)’에서 “책임감있고 정신력이 확고한 사람은 과거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하였다.²⁰⁾ 마리화나나 LSD는 “여행”을 실행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이러한 마리화나는 필리핀에서 19C중반에 선박을 통해 아까폴코항으로 반입되어 대마로 사용되었으며 멕시코혁명 동안에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대중화된 여러 노랫말에 나타나듯이 마리화나소비를 예측하게 한다.

18) Enrique Marroquín, op, cit., p. 53

19) *Ibíd.*, p. 65

20) *Ibíd.*, p. 71

마리화나는 아들 하나를 낳았다.
 Santana집안의 변호사였으므로
 San Expedito라 불렀다
 마리화나에게는 Sansón이었기에...²¹⁾

케루악은 마리화나에 대해서 뭔가 히피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을 발견했을 때 비트 세대가 그들의 후세대인 히피족에 유산으로 마리화나를 상속했다고 언급하였다. 히피족들은 기존가치를 거부하며 새로운 문화를 찾았고 마리화나는 “온다”가 설정한 새로운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결국, 히피운동은 직접적인 정치, 사회에 참여는 없었지만 내적 변화의 환영을 계기로 기존 사회와는 정반대의 다른 특징들을 외적행위로 실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피족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내적 채광” 뿐만 아니라 “외적 채광” 즉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각 개인의 “내적 변화”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C. 지피족의 출연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젊은세대 즉 내적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시도한 히피족들에게는 더 이상 히피족이라는 이름이 따라 붙지 않았다.

1968년 버클리 대학생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일부 히피족들이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정치성을 띠며 다른 경향의 운동으로 변신해 왔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도덕, 윤리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자유스럽게 평등한 사회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질서가치에 대항하여 직접적인 참여를 시도하였다. 그해, 1968년에 시카고에서 민주당협약이 거행될 때 같은 도시에서 이들 지피족의 자체협의회도 거행되었다. 많은 항목들 중에서 이들은 주전론을 거부하고 베트남전쟁의 종결을 요구하며 이 협약을 제1차 “공상권력의 시위(Manifestación del Poder de la Imaginación)”라 칭하였다. 호프만(Abbie Hoffman)은 지피운동의 지도자였으며 시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제시하였다.

21) *Ibíd.*, p. 32.

- 1) 히피철학과 신좌파철학을 결합한다.
- 2) 거대한 운동을 위해 모든 지하모임이 철저하게 폐쇄적으로 단결한다.
- 3) 마리화나와 정치의 융합.²²⁾

지피족들은 당대의 저명한 사상가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내적채광”과 양심을 추구했으며 LSD을 통한 단순한 “여행”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기존 질서와 분리되어 독특한 외형적 변화를 가져온 히피족과는 달리 지피족들은 멕시코의 “온다”지피족을 포함하여 정체된 태도정치,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정체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에 참여하였다. 마리화나나 LSD와 같은 환각제는 그들을 현실과 분리시키지 못했으며 그들 두뇌속에 존재하는 모든 상상력은 걸로 드러나 마르쿠제, 부르스 레니 등과 같은 사회학자나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체계화되어 시카고 등 미국 곳곳에서 기존질서가치와 충돌하며 지피족들의 상상력을 드러내 보였다.

멕시코에서도 지피족 성향을 띤 단체들이 존재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피족의 대부분은 68년도 틀라텔롤코(Tlatelolco)사태에 가담하였고 후에 이들 영향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과 더불어 문학, 철학 그리고 창작예술에 전념하기에 이른다. 특히 온다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외적채광”은 지피족들의 성향을 내포고 있는데, 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서 현저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다작품을 접할 때 일부 비평가들-살다나,몬시바이스(Carlos Monsiváis)그리고 글란스(Margo Glantz)-처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 혹은 반문화로 나아가야만 했던 사상적 배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온다문학을 정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히피운동은 기성사회와 기존가치를 거부하는 대중사회의 산물로써 환상적, 감각적 혁명, 내성고찰, “나”의 발견 그리고 내적 변화를 갈구하였고, 지피족 역시 기존질서 가치를 거부하기 했지만 이들은 “내적채광”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회, 정치에 참여하며 “외적채광”을 찾아 나섰다고 볼 수 있다.

22) Parménides García Saldana, op. cit., p. 38.

II. 멕시코의 온다

A. 히피테카(XIPITECA)의 출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넘어서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예전부터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티화나, 몬테레이 등의 국경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영향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로 인하여 영화,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 식민화’는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멕시코의 히피테카족들은 미국인 동료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독특한 의미를 지닌 운동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히피족은 소비사회에 저항을 했지만 멕시코 히피테카는 오직 부르조아계급에서 이탈한 젊은세대들이 그들의 경험한 멕시코 기존의 가정과 사회에 저항하였다.²³⁾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다 히피’는 소외된 일반 젊은세대들을 통해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계층의 젊은층에 의해서 확산되었음을 보았다. 중산계층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해 멕시코 곳곳, 특히 오아하카(Oaxaca)의 와우틀라(Huautla)에 모여 구체화하였다. 이곳에서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으며 자유스러운 활동이 가능하였다. 히피테카족들은 비종교적-비기독교적인-입장을 고수하였고, 어느 신비주의 교주의 거짓을 폭로하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정신”(El evangelio espiritual de Jesus Cristo)과 점성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병궁시대”(Era de Acuario)라는 서적이 그들 사이에 널리 읽혀졌다.

멕시코 수도에 장미구역(Zona Rosa)라는 지역은 히피테카, 예술가, 지식인들의 집회중심지였고 많은 커피숍에서 록음악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비밀리 마리화나도 접할 수가 있었다. 화빌라(René áviles Fabila)는 그의 작품 중 1972년에 발표한 「궁전의 위대한 은자El gran solitario de Palacio」에서 “장미구역”

23) Enrique Marroquín, op. cit., p. 29

과 히피테카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온다’경향을 추구했던 또는 추구하고자 했던 젊은 세대들 대부분은 추적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당국에서는 Tlatelolco사태로 인해 젊은세대들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사태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할리스코(Jalisco)주지사인 아스센시오(Francisco Medina Ascencio)는 과달라하라(Guadacajara)시에서 장발을 금지하였으며 곧이어 멕시코 수도에서도 경찰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장발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1969년에는 아카풀코(Acapulco)에서 시장이 록 오페라 “Hair” 공연을 금지시키며 여름내내 히피족들의 해변진입을 억제하였다. 히피테카족들은 미국 히피족과 달리 huichole²⁴⁾나 mazatecos²⁵⁾족들의 마술적 종교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관습을 따랐다.

전형적인 gabachos 동료들과 유사한 히피테카족들은 개인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하고 마약을 가까이 하였다. 그들은 마약을 복용하면 신앙심이 깊어지고 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인체에 많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삶의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믿었다.²⁶⁾

히피테카족들이 집단생활하는 지역에는 그들외에도 전위주의를 갈망하고 미국의 새로운 문화 등을 추구하는 젊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마약을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멕시코 히피테카족은 생존 문제 직면하였다. 미국에서는 공원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diggers”라는 단체가 발족되어 미국 전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주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래서 히피 공동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수공예품 등을 직접 만들어 상품화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미국의 경제수준상황과 달랐기 때문에 “diggers”와 같은 자선단체를 형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경쾌하고 현대 감각이 갖든 춤을 창안해내어 추기도 하고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한편으로는 벼룩시장에서 민중전통의 수공예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미국의 히피족과 마찬가지로 히피테카족들 또한 성의 개념에 있어 개방적이었고 무분별했으며 나체주의 성향도 거침없이 받아들

24) 아스테카의 후손들로서 Zacateca와 Nayarit주 사이에서 거주하는 인디언.

25) 멕시코북쪽 Oaxaca와 Guerrero 더 나아가 Veracruz에까지 분포되어 사는 인디언종족.

26) Enrique Marroquín, op. cit., p.66.

여졌다. 그러나 보수주의 성향의 멕시코 기성세대는 무분별한 새로운 가치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익은 히피테카족들이 기본적으로 항구적인 가치관에 반발을 하고 무례함을 일삼는다고 본다. 어떠한 행위라도 반문화적 행위는 우익에게 상처를 준다. 선이 존재하기 위해선 내면과 외면의 판별이 가능한 정조차원에서 확인, 용납되어야 한다.²⁷⁾

히피테카의 생활은 멕시코의 여러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지속, 확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어떤 역사적인 문화운동도 시작과 종료의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히피테카 세계의 절정적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기한다면 1971년 9월 11일과 12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Auándaro 축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uándaro 축제는 멕시코의 Woodstock²⁸⁾이었다. 음악과 속도 즉 록과 차륜의 첫 축제였다. 20만명의 젊은이들이 물려와 비를 맞으며 마약과 록음악을 한껏 즐겼다. 온다에게 Auándaro 축제는 개별적이지 않고 상상력과 감각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초점에 집중화된 역사의 순간이었다.²⁹⁾ 이 축제의 결정적인 요지는 억압과 투쟁하여 생명력있는 의미들을 회생시키는 것이었으나, 당국의 강압적인 자세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기로 “사랑과 평화의 세계”, 히피테카의 세계, 결국 60년대 많은 멕시코 젊은 세대를 사로 잡았던 새로운 문화와 사상은 소멸해버리고 말았다.

이젠 히피테카는 아른거리는 추억으로 남아있고 그들의 흔적으로 도시 이곳저곳에서 몇명의 소단위그룹이 수공예품을 팔거나 커피숍을 기웃거리며 구걸하는 모습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27) Carlos Monsiváis, *Antología de la crónica en México*, UNAM, México, p. 243.

28) 록페스티벌을 비롯 우드스톡 페스티벌로 알려졌지만 축제가 열렸던 장소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우드스톡으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진 농장언덕에서 개최되었다. 3일간의 악조건-폭우와 식품부족-에서도 50만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은 조화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실로 신화를 창조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Woodstock Nation”의 성립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상국가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단지 4개월 후의 엘타몬트 페스티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파플러음악 용어 대사전, op. cit, pp. 651-652

29) Carlos Monsiváis, op. cit., p. 250.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 일정하게 새로운 생활태도를 만들었듯이, 문학의 경우에도 시대상황의 저항과 혁신의 요소들이 작품에 투입하여 현대문학이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풍부한 작품이 생산되게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B. 아구스틴(José Agustín)작품에서 본 내적채광/외적채광 (Luz Internal/Luz Externa)³⁰⁾

앞 부분에서 “온다”의 사상적 배경을 일반적인 시대상황과 결부시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온다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아구스틴(José Agustín)의 작품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온다의 핵심인 내적/외적채광(Luz Interua/Luz Externa)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은 에르네스토와 마리아가 친분이 있는 어느 배우들이 공연하는 연극을 보러 가는 데서 시작된다. 극장에 가는 도중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마침 친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작품은 1인칭으로 씌어졌고 소설 전반에 걸쳐 재미나고 재치있는 표현, 형태가 없는 문장 그리고 통속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

“¡ Como está tu bonito cafetal!

i Muy mal! Nos acaba de fallar Maria Canesa!

i Y tú, gué patin!³¹⁾

(네 마약공급자-혹은 마약공급차량-은 잘 있니! 매우 앓잖아! Maria canesa는 방금 우리에게 실수했어! 너는, 어머니!)

위 예문에서 보듯이 “cafetal”은 당시 온다 세대들이 마리화나를 암시하며 사용하던 은어이다. 원래 “cafetal”은 커피재배원을 뜻하지만 이들에게는 마약공급자 혹은 운반기구의 의미로 사람이나 사물에게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살다나

30) 아구스틴의 자서전인 『중심부에서 눈초리Lamirada en el centro』는 1966년에서 1976년까지 10년 동안의 경험담을 4부(동:Este, 서:Oeste, 남:Sur, 북:Norte)로 나누어 엮은 책이다. 이 책 3부(남:Sur)에서 외적채광Luz Externa이 기술되어 있고, 1978년에 출판된 『왕은 그의 성에 다가간다El Rey se acerca a su templo』에서 2부(외적/내적채광)으로 나누어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적 현상들 특히, “Onda”의 중요한 특징인 언어, 테마, 기법 그리고 철학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31) José Agustín, *La mirada en el centro*, Joaquín Mortiz, México, 1978, p. 72.

는 그의 작품 「온다의 길에서 En la ruta de la onda」에서 “일부 젊은세대들에게 제한되고 비밀스럽기까지한 ‘온다 언어’는 누가 어디서 창안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초기에는 무정부주의자나 테러주의자들의 언어처럼 여겨져 사용이 금지되었었다. 또한 이 언어는 일부 젊은 세대층의 부활을 예측하기도 했으며 기존 멕시코사회를 배격하기도 하였다. 기존사회에 불만을 갖거나 혹은 소외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호들을 60년대에 사용하던 언어와 혼합하여 만들어 냈다.”³²⁾

연극이 끝난 후 이들은 다시 다른 친구 3명과 합류하여 외딴집으로 가서 마리화나를 피우며 논쟁을 한다. 친구인 Cantémoc은 마리화나는 피지만 합성마약은 피울 수 없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이다. 그는 혁명은 합성마약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에르네스토는 열성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배척하며 합성마약을 통한 “여행”경험담을 늘어놓으며 대항한다.

이 작품에서 Cautémoc은 지피경향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에르네스토는 순수히 피족으로 분석된다

“Ernesto:해롭진 않아, 단지 약간의 사회적 예측을 느끼긴 하지만 너무나도 성스러운 가정, 나라 그리고 정부 같은 것에서 느끼는 구속 따위하고는 달라.”³³⁾
 “Cautémoc:네 주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여행할 필요가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막스를 읽어라.”³⁴⁾

결국, 이 작품에 나타나는 작중인물 모두는 각기 정해놓은 목적을 향해 그들의 “온다”를 추구하고 있다.

60년대 젊은 세대들의 혁신적인 자세-내적/외적혁명-은 개방적인 사고로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비평가들에게 기성문화의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60년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온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논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60년대 젊은 세대들이 취한 저항적인 태도는 어떤 면에

32) Parménides García Saldana, op. cit., pp.50-51

33) José Agustín, op. cit., p. 79.

34) Ibíd. p. 81.

서 볼 때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나 적응을 표현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Onda”작품을 통해서 60년대 멕시코 젊은 세대들의 실존의 존속을 Luz Externa-Luz Interna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함이며 존재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자하는 것이다.

III. 맺음말

이제까지 “온다문학”의 사상적 발자취를 몇단계-히피, 지피, 히피테카-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현상들은 60년대에 이르러 기존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뜨리고자 새로운 의식 또는 반문화운동을 결과해 냈다. 이러한 반문화는 사회변동의 당연한 현상으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상적, 윤리적 그리고 미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내었다. 다시말해서, 그들 새로운 세대들의 문화는 산업시대를 맞아 산업문화가 지니는 인식론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현대 과학을 부정하고 원시적인 복고주의로 환원하고자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과학에 근거한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윤리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젊은 세대 기존 질서가치 즉 현대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대항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편리하고 좋다고 느끼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쉽게 대중 소비문화에서 드러나는 감각주의적 혹은 쾌락주의적인 경향이라 볼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의 반문화운동은 단절되고 결핍된 세대간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하는 측면에서 관측할 때 그들의 윤리적 가치는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된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기존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은 미학적 차원에서 볼 때 기성사회가 내포한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는 단순한 파괴적 작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상태로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의미로 간주해야 한다.³⁵⁾

35) 오세철, op. cit., p. 284.

참고문헌

오세철, *현대사회의 조직과 변동*, 학민사, 1986.

파퐁리음악용어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3.

팝아티스트대사전, 아름출판사, 1992.

AGUSTIN, José, *La mirada en el centro*, Joaquín Mortiz, México, 1978

GARCIA SALDANA, Parménides, *En la ruta de la onda*, Diógenes México, 1986.

MARROQUIN, Enrique, *La contra cultura como protesta*, Joaquín Mortiz México, 1975.

MONSIVAIS, Carlos, *Antología de la crónica en México*, UNAM, 1979.

RANDALL, Margaret, *Los hippies*, Siglo Veintiuno, México, 1968.

Rasgos de la filosofía de la Onda

Joong, Kim

A partir de la década de los años cuarenta, concretamente con *Al filo del agua*(1947) de Agustín Yañez(1904-1980), se inicia una nueva etapa en la narrativa mexicana contemporánea. Esta influirá en forma definitiva en el movimiento conocido como “la literatura de la Onda” es el nombre que se conoce a los jóvenes autores que dieron a conocer su obra inicial en la década de los años sesenta.

Es evidente que los cambios que se estaban generando en el ámbito internacional tenían una enorme repercusión en el continente latinoamericano y, por supuesto, en México también. Los movimientos juveniles que buscaban derribar los acostumbrados y enmohecidos mitos mexicanos se manifestaban de muy diversas formas, desde las organizaciones políticas hasta las grandes aportaciones al arte en general.

La década de los sesenta fue un periodo riquísimo en cuanto a descubrimientos relacionados con la conciencia del hombre, y quienes se situaron en la vanguardia de esta búsqueda fueron los jóvenes del mundo. Europeos, norteamericanos, orientales y latinoamericanos irrumpieron en el ámbito internacional, se apoderaron en las primeras planas de los diarios, replantearon los esquemas de la moral, buscaron en las drogas otras formas de comunión, aprovecharon las facilidades que ofrecía el uso de los medios masivos de comunicación, utilizaron el rock como lenguaje universal. Muchos morían en la guerra de Vietnam o en los enfrentamientos como los ocurridos en Tlatelolco; o bien, atrapados en el abismo de la droga.

Parece que la juventud y la mujer tienen mayor participación en el acontecer cotidiano, se entra de lleno en sociedades regidas por los medios

masivos de comunicación, el sistema capitalista ha promovido las sociedades de consumo, y el arte pop se manifiesta como una manera de protestar ante el desaforado consumismo. Una ola de pensamientos contestatarios culmina con el surgimiento de los hippies, y luego los yippies que tampoco carecen de interés.

Las convulsiones de la época son propicias para el surgimiento de una ideología completamente de rechazo a los patrones convencionales que se conocería con el nombre de movimiento hippie; es decir, jóvenes que se agrupan fuera de sus hogares, cuyas actividades eran contra el mundo burgués establecido. Rechazan ante todo la violencia y paulatinamente crean una moral propia, cargada de misticismo. El espíritu pacifista de los hippies chocaba con el belicismo y la generalizada sociedad de consumo norteamericana. Los yippies, por su parte, son un ala del movimiento hippie que también rechazan los valores establecidos, pero no se quedaron en la alucinación psicodélica de la iluminación interna: los yippies se politizaron y fueron en busca de la "Luz Externa".

Concretamente en la década de los sesenta los jóvenes llamaron la atención de toda la sociedad mediante dos formas tradicionales de lucha: una política (Luz Externa), otra moral (Luz Interna). A través de éstos los jóvenes insistieron con una gran pasión en la necesidad irreversible de llevar a cabo cambios profundos, revolucionarios: de cambiar hasta la raíz la organización de los sistemas políticos-económicos-sociales. También insistieron modificarse desde su raíz para que las relaciones humanas se aireen y para que pueda existir una manera de vivir mediante la cual la existencia se disfrute y el hombre llegue a su plenitud, a disponer del máximo de sus potencialidades y la vida misma no se desperdicie.